『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5
pp.067-082 ISSN : 1229-9618

손오공과 諸神의 전투에 대한 불교적 독해

강경구*

【목 차】

1. 서론
2. 용궁 약탈과 苦의 부정
3. 幽冥界의 만행과 無常의 부정
4. 천신들과의 전투와 無我의 부정
5. 二郞眞君의 관찰과 집중
6. 결론

【초록】

이 논문은 손오공과 제신들 간의 전투에 대한 불교적 독해를 주제로 한다. 『서유기』는 당 玄奘의 구법여행을 그 소설창작의 모티프로 삼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전체 여정은 물론 각 장의 이야기와 주제의식 또한 현장의 불교적 실천과 긴밀한 친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서유기』는 다양한 불교적 사상들을 문학적 형상으로 녹여내고 통합한 현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孫悟空의 형상 또한 그 탄생, 도술학습, 諸神과의 전투, 서천 여행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 일관된 불교적 메시지가 발견된다. 요마에서 성인으로 승화하는 그 전체적 여정은 유식의 轉識得智의 경로를 밟고 있으며, 각 장의 모험담은 空性의 깨달음이라는 주제의식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오공의 형상과 역할을 고찰한다면 『서유기』에 대해 보다 풍부하면서도 일관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손오공과 제신의 전투를 자아의 집착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그 의미를 천착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불교에서 三法印으로 규정하는 無常·苦·無我라는 삶의 본질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되어, 그 집착에 대한 관찰로 이어지며, 자아의 공성에 대한 발견으로 일단락된다.

【키워드】 『서유기』, 제신과의 전투, 불교적 독해, 손오공, 삼법인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kkkang@deu.ac.kr)

1. 서론

『서유기』는 마음의 승화를 향한 여정을 그린 소설로서 그 인물들과 사건들에 뚜렷한 불교적 상징과 메시지가 발견된다. 『서유기』는 당 玄奘의 구법여행을 그 소설창작의 모티프로 삼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전체 여정은 물론 각 장의 이야기와 주제의식 또한 현장의 불교적 실천과 긴밀한 친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唯識과 般若사상[1]은 『서유기』의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일관된 주제의식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중국불교의 실천들이 그 내용으로 채택되는데, 따라서 『서유기』는 다양한 불교적 사상들을 문학적 형상으로 녹여내고 통합한 현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문학적 형상화의 탁월한 성취로 인해 불교적 주제의식이 가려지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진행된 『서유기』에 대한 불교적 주제의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드물지 않으며, 필자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찰[2]을 진행한 바 있다.

孫悟空의 형상 또한 그 탄생, 도술학습[3], 諸神과의 전투, 서천 여행과정에서의 역할[4] 등에 있어서 일관된 불교적 메시지가 발견된다. 요마에서 성인으로 승화하는 그 전체적 여정은 유식의 轉識得智의 경로를 밟고 있으며, 각 장의 모험담은 空性의 깨달음이라는 주제의식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오공의 형상과 역할을 고찰한다면 『서유기』에 대해 보다 풍부하면서도 일관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손오공과 제신의 전투를 자아의 집착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그 의미를 천착해보고자 한다. 미리 개관하자면 손오공과 제신과의 전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의 무력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해결책으로 관찰의 길을 제시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그것은 불교에서 三法印으로 규정하는 無常·苦·無我라는 삶의 본질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되어, 그 집착에 대한 관찰로 이어지며, 자아의 공성에 대한 발견으로 일단락된다. 우선 삶의 현주소에 대한 부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기로 한다.

---

1) 玄奘은 인도에서 唯識學의 대논사인 戒賢에게 배워 護法의 유식관점을 계승하였으나, 귀국한 이후 護法의 『成唯識論』을 위주로 하되 인도 유식논사들의 사상을 통합하여 중국 法相宗의 종조가 된다. 한편 현장은 만년에 반야부의 경전을 집중하여 번역하는데 그 중 특히 「般若波羅蜜多心經」은 한자문화권의 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이 된다.

2) 「西遊記의 花果山에 대한 불교적 독해」,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12 ; 「西遊記, 용의 출몰, 말나의 그림자」,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12 ; 「西遊記 豬八戒 형상의 불교적 독해」,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16.03.

3) 손오공은 靈臺方寸山, 斜月三星洞에서 도술과 筋斗雲 법을 익힌 뒤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온다. 영대방촌산은 마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靈臺와 方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월삼성동은 3개의 별과 초승달이 결합하여 마음 心자를 구성한다. 손오공의 도술학습이 마음에 대한 성찰과 눈뜸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4) 『西遊記』의 각 인물을 독립적 존재로 보느냐, 한 인물의 다양한 심적 갈등의 형상화로 보느냐에 따라 『서유기』의 독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인물들을 마음의 각 층차와 다양한 작용들에 대한 형상화로 보고자 한다.

2. 용궁 약탈과 苦의 부정

須菩提에게서 도술을 익힌 뒤 수렴동으로 돌아온 손오공은 몇 가지 만행을 저지른다. 특히 용궁에서 여의봉을 약탈하고, 명부의 생사부를 훼손하며, 하늘을 어지럽히고 천신들과 싸우는 장면은 『서유기』의 가장 정채 있는 모험담인 동시에, 無常, 苦, 無我라는 원리를 부정하고 자아를 실체로 집착하는 삶의 현주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우선 용궁약탈은 苦에 대한 부정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손오공은 傲來國의 무기창고를 약탈하여 수렴동에 왕국을 건립한 후, 다시 동해용왕을 찾아가 이웃임을 자처하며[5] 여의봉을 탈취한다. 그것은 禹 임금이 치수를 할 때 강과 바다의 깊이를 재는데 쓰던 도구였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얻고 나서도 다시 동해용왕을 압박하여 그 형제가 되는 다른 용왕들에게 투구와 갑옷, 신발 일습을 받아 돌아온다. 이것이 용궁 약탈의 전말이다.

손오공이 스스로를 용왕의 이웃으로 자처한 것은 수렴동과 용궁이 바로 통하기 때문이었지만 여기에 심층의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수렴동이 마음의 원천에 대한 상징이며, 용궁이 제8아뢰야식의 상징[6]이라는 점을 고찰한 바 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용왕의 가까운 이웃이라면, 그는 제8아뢰야식(용궁)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말나식[7]에 해당한다. 손오공이 제신과의 전투에서 말나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손오공은 여의봉을 약탈해간 뒤, 여섯 마왕과 형제를 맺고 일곱 번째 마왕이 된다. 유식에서 일곱 번째 마음의 마왕은 제7말나식이다. 또 손오공에게 귀속된 如意棒의 명칭도 그의 신분을 암시한다. 마음을 心=아뢰야식, 意=말나식, 識=6식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유식의 이론을 적용하면 여의봉은 말나식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 자아집착의 화신이라는 점에서 손오공은 말나식의 역할을 수행한다. 말나식은 항상성과 사유성(恒審思量)을 특징으로 하는데, 아뢰야식의 보는 측면(見分)을 자아로 집착한다. 그래서 말나식은 意로 번역하며 그것은 항상 살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식의 층차와 다르다. 제8식은 항상성은 있지만 판단하지 않고, 제6식은 판단하기는 하지만 항상성이 없다. 그리고 전5식은 항상성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7식만은 승화되기 전에는 항상 판단하고 생각하며, 자아와 대상에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다.[8]

자아와 대상에 허망하게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지키

---

5) 悟空道, 吾乃花果山天生聖人孫悟空, 是你老龍王的緊鄰, 為何不識. 吳承恩, 『西遊記』(第3回), 上海古籍出版社(이하 『西遊記』), 2004, p.18.

6) 水簾洞의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무수한 돌(石) 가구들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釋)라는 불교적 관점을 드러내가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용궁은 가장 심층의 마음인 아뢰야식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 필자의 논문 「西遊記의 花果山에 대한 불교적 독해」,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12 ; 「西遊記, 용의 출몰, 말나의 그림자」,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12 참조.

7) 『서유기』의 주인공들은 정해진 역할에 머물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나식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유기』의 각 모험담들이 일정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8) 末那, 此云意. 其義即恒審思量也. 勝餘識者, 第八恒而不審, 第六審而不恒, 前五不恒不審, 唯此第七, 於未轉位, 恒審思量妄執我法. 智旭 述, 『成唯識論觀心法要』, 卍續藏51, p.0319b.

고 대상을 소유하고자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것은 불교에서 진단한 바, 無常・苦・無我라는 삶의 섭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손오공의 여의봉 탈취는 이 중에서도 여의하지 못함을 내용으로 하는 苦의 섭리[9]를 부정하고 如意하게 되기를 바라는 전도된 집착에 대한 상징적 표현에 해당한다. 『서유기』 전체를 통관할 때 여의봉의 여의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있다. 손오공이 마왕으로서 제신들 및 여래와 싸우던 시기의 여의가 그 하나이고, 이후 불법에 귀의하여 요마와 싸우는 시기의 여의가 다른 하나이다.

우선 제신들은 물론 여래와 싸우던 시기의 여의는 자아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여의이다. 용궁에서 얻었던 원래의 여의봉은 손오공에게 너무 굵고 너무 길다. 그래서 짧고 가늘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의봉은 그가 흡족해할 때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 이 시기 손오공은 자아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중에서도 馬流崩芭 네 장수의 역할이 부각된다. 이들은 손오공에게 진언하여 오래국의 무기창고를 약탈하게 하고, 용궁에 들어가 여의봉을 탈취하도록 진언한다. 이 공로로 네 명의 장군은 각기 馬流원수, 崩芭장군[10]에 임명된다. 이후 손오공의 전투에는 이들이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은 손오공이 서천으로의 구법여행을 계속할 때에는 사라졌다가, 삼장과 잠시 결별하여 화과산의 마왕으로 복귀하자 다시 나타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네 원숭이는 마왕으로서의 손오공과 짝이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유식에서는 제7말나식에 상응하여 나타나는 네 가지의 미혹(四惑)[11]을 말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我癡, 我見, 我慢, 我愛의 4가지 미혹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유식법상종에서는 제7식이 인연에 이끌려 자아를 집착하고, 네 가지의 미혹함과 상응한다고 말한다. 첫째가 我癡이다. 나의 모양에 어리석음을 내는 일인 바, 나의 실체가 없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가 我見이다. 실체가 없는 자아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허망한 견해를 내기 때문이다. 셋째가 我慢이다. 자아의 집착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넷째가 我愛이다. 자아에 거슬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12]

---

9) 경전에서는 주로 八苦(一生苦, 二老苦, 三病苦, 四死苦, 五愛別離苦, 六怨憎會苦, 七求不得苦, 八五陰盛苦)를 말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道世『法苑珠林・八苦部』, 大正藏53, pp.0791b~0792b 참조.

10) 馬流崩芭가 馬·流·崩·芭인지 아니면 馬流, 崩芭인지에 대해 논의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馬流가 원숭이의 이칭으로서 특히 민간연예에서 자주 쓰이던 용어였음을 지적한다. 우선 『本草綱目・獸部』에 제시된 원숭이의 이칭 중에 馬留가 있었으며, 이것이 민간연예의 기록에 說法馬留, 著也馬留 등의 용례가 있다는 점을 든다. 이 馬留가 바로 馬流라는 것이다. 崩芭에 대해서는 고찰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는 연구성과에 해당한다. 「悟空麾下, 缘何称马流元帅、崩芭将军」, 『北京青年报』, 2015年09月11日.

11) 次第二能變, 是識名末那, 依彼轉緣彼, 思量為性相, 四煩惱常俱, 謂我癡我見, 并我愛我慢. 世親 造, 玄奘 譯, 『唯識三十論頌』, 大正藏31, p.0060b.

12) 按相宗中, 第七識隨緣執我, 與四惑相應. 一者我癡, 謂愚於我相, 迷無我故. 二者我見, 謂非我法中, 妄見我故. 三者我慢, 謂恃所執我, 心高舉故. 四者我愛, 謂於順我者, 深耽著故. 通理 述, 『圓覺經析義疏』, 卍續藏10, p.0750c.

이 네 가지 미혹은 말나의 자아왕국을 지키는 네 명의 장군에 정확하게 배대된다. 그 핵심은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서 이를 통해 손오공이라는 자아의 욕망을 뜻대로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여래는 그들에 대해 赤尻馬猴가 죽음을 피해 생을 늘이는 재주를 갖고 있고, 通臂猿猴는 하늘과 땅을 가지고 노는 재주가 있다[13]고 설명한다. 이들이 자아의 뜻대로 되는 차원의 여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불법에 귀의한 이후의 여의봉은 법과 이치대로 순행하는 차원에서 여의하다. 그것이 상대하여 물리치는 요마들은 모두 불법에 반한 전도된 망상에 해당한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들어 이 전도된 망상을 제거하여 법과 이치에 순응하는 자리로 돌아온다. 그것은 禹의 치수사업용 도구였을 때 여의봉이 수행하던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禹는 홍수를 물을 무작정 막으려 했던 부친(鯀)의 방법 대신 아래로 흐르는 물의 섭리에 순응하여 물길을 터주는 치수법을 개발한다. 이 때 여의봉으로 바닥의 깊고 얕음을 재서 지형의 고저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불법에 귀의한 이후의 여의봉은 이렇게 섭리(天意)를 따르는 차원에서 여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훨씬 이후의 일로서 현재의 손오공은 자아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여의봉을 휘두르는 중이다. 그것은 자아강화의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손오공은 여의봉을 얻은 후에도 자아와 동일시되는 육체를 꾸미기 위해 그것에 어울리는 복장을 내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신발(藕絲步雲履)과 갑옷(鎖子黃金甲)과 관(鳳翅紫金冠)의 일습을 갖춰 입게 된다. 이러한 여의는 자아의 극단적 팽창을 불러온다. 그래서 손오공은 스스로 위로 33천, 아래로는 18층 지옥에 닿도록 몸을 키워 여의봉을 뜻대로 휘두르며 자아의 존재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아의 네 기둥인 四惑이 원수와 장군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육체를 형성하는 여섯 도적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일이 일어난다. 여섯이란 牛魔王, 蛟魔王, 鵬魔王, 獅狒王, 獼猴王, 狨王이 그들인 바, 이 여섯 마왕은 眼·耳·鼻·舌·身·意의 여섯 지각작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에 손오공까지 더하면 일곱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곱 번째인 손오공은 제칠식 말나식이다. 이 일곱 번째 의식은 끝없이 생각하면서 제8아뢰야식에 집착하여 자아의식을 수립한다. 일곱 번째 왕인 손오공은 이렇게 지금 苦의 섭리에 반하여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전도된 망상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3. 幽冥界의 만행과 無常의 부정

손오공이 幽冥界에서 저지른 만행은 無常에 대한 부정에 해당한다. 여섯 마왕과의 잔치 끝에 술에 취해 잠이 든 손오공은 幽冥界에 끌려간다. 양계에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오공은 자신을 잡아온 두 저승사자를 박살내고, 명부를 다스리는 열 명의 왕들을 위협하여 생사부의 이름을 지우고 돌아온다. 그리고는 네 장군과 여섯 마왕들의 축하를 받으며

13) 第二是赤尻馬猴, 曉陰陽, 會人事, 善出入, 避死延生. 第三是通臂猿猴, 拿日月, 縮千山, 辨休咎, 乾坤摩弄. 『西遊記』(第58回), p.445.

새로운 잔치를 즐긴다는 것이 幽冥界 만행의 전말이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저승에 끌려가는 손오공의 삶은 취생몽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여섯 마왕의 감각적 욕구와 네 장수의 자아집착에 충실히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항상 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고 그 욕망의 충족에 도취되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손오공은 술에 크게 취하는(酩酊大醉)[14] 일상을 살다가 잠이 들어 저승에 끌려간 것이다. 저승에 끌려간 손오공은 두 저승사자를 때려죽이고, 생사부에서 자신과 원숭이들의 이름을 지우는 두 가지 만행을 저지른다.

그가 때려죽인 두 저승사자는 白無常, 黑無常으로 불리는 존재들이다. 이들을 때려죽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상에 대한 부정이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자아의 영속성을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常見)에 바탕하고 있다.

> 이 손 어르신은 삼계를 초월하여, 오행에 속하지 않는다. 이미 그런 것들의 관할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 얼마나 멍청하기에 감히 이렇게 나를 끌고 온 거냐?[15]

손오공은 장생불사의 꿈을 갖고 수보리 존자를 찾아가 도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도를 성취하였으므로 하늘과 같이 오래 살고,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 몸을 성취했다[16] 고 믿는다. 손오공의 만행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 초월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상대적 차원을 둘로 나누지 않는 不二의 깨달음과 그 실천에서 일어난다. 생과 사를 둘로 나누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이 작용하는 현장을 취사선택의 집착이 없이 돌이켜 관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돌이켜볼 때 모든 생성-소멸하는 존재에 영속하는 본질이 따로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 緣起性空의 이치로서 이것을 깨달아 밝게 알고 그에 상응하여 사는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길[17]로 제시된다.

손오공은 자아를 강화시켜 스스로 삼계를 벗어나고, 오행의 지배를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후 손오공의 행적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오행의 지배를 받는 존재임이 확인된다. 특히 그것은 손오공이 여래의 손이 변한 오행산에 갇혀 500년을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표현되며, 오행산에서 풀려난 후 서천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오행을 무시하거나 상극의 원리로 대처하는 바람에 다양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다. 紅孩兒의 火攻을 물로 이겨내려 하다가 오히려 물에 빠져 숨까지 멈추게 되는 고난을 당한 일은 그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오행을 이기려하는 것은 우주법계의 섭리와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만행이며,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

14) 一日, 在本洞吩咐四健將安排筵宴, 請六王赴飲, 殺牛宰馬, 祭天享地, 著眾怪跳舞歡歌, 俱吃得酩酊大醉. 『西遊記』(第3回), p.21.

15) 我老孫超出三界之外, 不在五行之中, 已不伏他管轄, 怎麼朦朧, 又敢來勾我. 『西遊記』(第3回), p.21.

16) 我常聞道高德隆, 與天同壽, 水火既濟, 百病不生. 『西遊記』(第2回), p.12.

17) 緣起十二因緣也, 見緣起性空, 是為見法, 見法即見佛, 斯則物我不異之效也. 又何有先後始終哉. 憨山德清, 『肇論略注』, 卍續藏54, p.0366b.

물론 손오공이 육체를 가진 채 영생을 꾀한 것은 아니다. 존재의 영속성에 대한 손오공의 집착은 영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가 꿈을 꾸다가 영혼이 끌려갔다는 사실[18], 그리고 유명계의 생사부에 '魂'의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19]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수행을 통해 영혼이 삼계를 초월하고 오행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손오공의 현재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有情世間의 모든 존재, 器世間의 모든 사물, 나아가 인간의 찰나적 心念조차 모두 生住異滅의 변화운동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 인연의 임시적 조합으로 쌓였던 것은 결국 흩어지고, 높이 올라간 것은 결국 떨어지며, 만난 것은 분리되고, 태어난 것은 죽게 되는 것이 필연의 이치이며, 여기에 영혼 또한 포함된다.

손오공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생사부에 쓰인 이름을 지우고 돌아와 영생을 얻게 된 사실을 축하한다. 원래 그가 지운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는 임시적 부호로서 별도의 실체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자아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에도 실체가 있다는 집착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것이 計名字相[20]인 바 손오공은 이름의 실체성에 집착하여 그것을 지움으로써 죽음의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름을 지운다고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사는 자아와 대상을 둘로 나누고 모양에 따라 분별을 하는 이원사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자아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서천여행을 하게 된 뒤에도 이름에 대한 분별과 집착으로 인해 손오공은 수시로 고난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金角·銀角 대왕의 고난이다. 두 마왕에게는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바로 그 주인공을 잡아들이는 호로병이 있었는데 손오공은 자기의 이름을 者行孫으로 바꾸어 이에 응한다.

> "내 진짜 이름은 孫行者인데, 者行孫은 가짜로 지은 이름이다. 진짜 이름은 잡아들일 수 있겠지만 가짜 이름으로는 잡아들이지 못하겠지."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대답을 하자 쉭! 하고 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딱지가 붙여졌다. 원래 그 보물은 그 이름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하지 않고 대답하는 기운을 잡아 가둬 들이는 것이었다.[21]

이처럼 이름은 임시적 표지에 불과하고, 가짜이든 진짜이든 자아가 그것에 동일시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이름의 유무에 상관없이, 나아가 육체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아는 인연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워 죽음에서 벗어나고 무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손오공의 집착은 만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

18) 只見那美猴王睡裡, 見兩人拿一張批文, 上有孫悟空三字, 走近身, 不容分說, 套上繩, 就把美猴王的魂靈兒索了去, 踉踉蹌蹌, 直帶到一座城邊. 『西遊記』(第3回), p.21.

19) 另有個簿子, 悟空親自檢閱, 直到那魂字一千三百五十號上, 方注著孫悟空名字, 乃天產石猴, 該壽三百四十二歲, 善終. 『西遊記』(第3回), p.21.

20) 四者計名字相, 依於妄執, 分別假名言相故. 四計名字相者, 依前顛倒, 所執相上, 更立名言, 是分別故. 楞伽云, 相名常相隨, 而生諸妄想, 故云依於妄執等也. 法藏, 『大乘起信論義記』, 大正藏44, p.0251b.

21) 我真名字叫做孫行者, 起的鬼名字叫做者行孫. 真名字可以裝得, 鬼名字好道裝不得. 卻就忍不住應了他一聲, 颼的被他吸進葫蘆去, 貼上帖兒. 原來那寶貝, 那管甚麼名字真假, 但綽個應的氣兒, 就裝了去也. 『西遊記』(第34回), p.257.

4. 천신들과의 전투와 無我의 부정

손오공은 자신을 토벌하러 온 천신들과 두 번의 전투를 수행한다. 첫 번째 전투는 弼馬溫의 하위직을 박차고 화과산에 돌아온 이후 일어난다. 이 때 천상의 선봉장들은 모두 손오공에게 패하여 돌아가고 만다. 두 번째 전투는 齊天大聖의 虛職을 받아 천상에서의 삶을 즐기다가 술에 취해 서왕모의 연회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태상노군의 단약을 모두 훔쳐 먹고 수렴동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난다.

먼저 첫 번째 전투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오공은 弼馬溫이라는 관직이 하위직임을 몰랐을까? 왜 말들을 잘 키워놓고는 나중에 박차고 나온 것일까? 사실 손오공은 바로 그렇게 말을 잘 키웠기 때문에 천상을 박차고 내려오게 된다. 그 전에 우선 弼馬溫이라는 이름[22]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유기』의 모든 이름과 형상은 마음의 비유이다. 당연히 말(馬)도 마음의 비유이고 필마온도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유기』에 意馬心猿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말과 같고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원숭이와 함께 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 형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당 삼장이 귀국 후 널리 선양한 유식학에서는 의식작용을 心과 意와 識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중 意馬는 末那識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오공은 여기에서 말나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心猿과 意馬는 여기에서 동일한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마땅하다. 손오공은 이 말들을 보살피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다. 그것은 단절 없는 말나식의 작용에 대한 비유이다. 말나식은 단절 없는 생각(恒審思量)을 큰 특징으로 하며 수면이나 悶絶일 때에도 작용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보살핀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말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자아집착을 특징으로 하는 말나식이 팽창한 것이다. 손오공이 정해진 직책을 벗어던지고 천상을 내려온 것이 이 때문이다. 살찐 자아의 말을 키운 손오공이 그 자리에 편안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하늘의 직책을 박차고 나온 손오공을 다스리기 위해 천상에서는 巨靈神과 哪吒太子를 보낸다. 거령신은 손오공의 죄목이 "마음을 속인(欺心) 죄"임을 밝힌다. 자아의 실체성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속이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거령신의 특징은 크기에 있다. 우주를 채우는 크기로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오공은 거령신의 머리를 내리쳐 물리친다. 머리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은 거령신의 크기가 상대적인 경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

---

22) 필마온의 필(弼)은 보살핀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말의 병을 막는다(僻馬瘟)'는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보필할 필(弼)과 피할 벽(僻)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구간에 원숭이를 넣어 기르는 말 사육법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부산하게 움직이는 원숭이로 인해 말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둘째, 원숭이 암놈이 매달 흘리는 피가 말의 여물에 묻게 되는데, 이것을 말이 먹으면 병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숭이의 별명이 필마온이었으며 손오공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데 참고할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林憲亮, 「孫悟空官職－弼馬溫考」, 『中國典籍與文化』, 第72期, 2010.02, pp.133-137 참조.

대적 측면을 세워 다른 부정적인 것을 억제하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이원적 사유에 바탕한 개념놀이일 수밖에 없는 이 억제의 전략은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상대적 크기로 압도하려던 거령신은 머리가 깨져 달아나고 만다.

거령신이 실패하자 나타태자가 뒤를 잇는데 그는 수량으로 압도하는 전략을 취해 머리가 셋, 팔이 여섯 달린 모습으로 변하여 여섯 가지 무기를 휘두른다. 斬妖劍, 砍妖刀, 縛妖索, 降妖杵, 繡毬兒, 火輪兒가 그것이다. 이에 손오공도 머리 셋, 팔 여섯으로 변신하여 상대한다. 그런데 그는 나타태자와 달리 동일한 여섯 자루의 여의봉을 쓴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많음과 하나가 통일된(一卽多, 多卽一) 관계에 있어 불교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에 있다. 따라서 많음으로 압도하려던 나타태자는 손오공의 분신에게 뒤통수를 맞아 물러나고 만다. 결국 거령신의 궁극적 하나와 나타태자의 무수한 많음은 각기 한쪽에 치우쳐 중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자아의 팽창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싸움에서 손오공이 하늘의 장수를 물리쳤다고 해서 그 자아의 팽창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편에 상대적인 무엇을 세워 그것을 억제하려는 일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뜻일 뿐이다.

이에 하늘에서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齊天大聖의 이름을 虛職으로 제수하여 회유하고 달래는 전략을 쓴다. 원래 모든 존재의 이름은 태상노군과 옥황상제가 비밀리에 상의한 것처럼 실속이 없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는 관념화된 이름(名字相)의 폐기가 그 주된 목록에 포함된다. 손오공의 이름만 해도 폐기와 대체의 의미심장한 변천사를 갖는다. 石卵에서 시작하여 石猴→美猴王→孫悟空→天生聖人→弼馬温→齊天大聖→孫行者 등으로 전개되는 이름의 변천사가 그것이다. 그것은 둥그런 돌멩이가 상징하는 바 이름붙일 수 없는 전체성에서 시작하여 형상적 구분이 일어나는 단계(石猴), 아름답고 추함의 관념적 판단이 일어나는 단계(美猴王)로 나아간다. 그런 뒤 하늘이 낳은 성인(天生聖人)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손오공이 용궁에 쳐들어갔을 때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놓은 호칭이다. 자아의 배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弼馬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의식의 팽창을 밝히는 이름이다. 다음으로 齊天大聖은 하늘과 같은 성인이라는 뜻이므로 그 높임의 정도가 '天生聖人'을 뛰어넘는다. 하늘이 낳은 성인은 절대적 존재에서 파생된 존재이지만, 하늘과 같다면 스스로가 절대적 존재와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오공은 하늘과 나란한 높은 존재임을 자처하는 자신이 그에 어울리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虛職이므로 서왕모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손오공은 이 사실을 분하게 생각하여 서왕모의 잔치 술과 태상노군의 선단을 훔쳐 먹게 된다. 이로 인해 하늘의 제신들과 손오공 사이에 두 번째의 전투가 일어난다.

이 전투에 선봉으로 나선 九曜星官은 연월일시와 사시의 운행을 주관하는 시간의 신들이다. 이 싸움은 구요성관의 점차적 압박이 세 번에 걸쳐 보고되는 동안 손오공이 대응을 미루다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우선 세 번의 보고에 대한 손오공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오늘 아침 술이 있으니 오늘 아침은 취하고 보자. 문 앞의 시시비비는 내버려둬라.[23]

23) 今朝有酒今朝醉, 莫管門前是與非. 『西遊記』(第5回), p.36.

② 상관하지 마라. 시와 술이 있으니 오늘의 즐거움을 도모할 뿐, 공명을 이룰 날 언제인지 묻지 마라.[24]

③ 근본 없는 작은 신들이 정말 무례하구나. 본래 상대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문 앞까지 와서 나를 깔본단 말인가?[25]

최초의 두 반응은 손오공의 느긋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오늘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며 시간의 간섭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세 번째는 구요성관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서야 반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시간은 개별적 자아의 비실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힘이다. 시간의 신이 선봉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시간의 신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격퇴당하고 만다.

원래 천상에서 손오공은 자아를 영속으로 이끄는 복숭아와, 자아도취를 이끄는 술과, 자아의 불괴를 약속하는 선단을 유감없이 맛보았다. 자아를 궁극적 실체로 보는 집착이 점차 강해지는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다. 이 자아의 궁극적 실체성(實有)[26]에 대한 집착은 극히 집요하여 시간의 신들이 지쳐서 돌아간다.

그러자 공간의 신들인 사대천왕들이 내려와 손오공의 선봉인 獨角鬼王과 72동의 妖王들을 모두 잡아간다. 독각귀왕은 손오공에게 천자의 옷(赭黃袍)을 헌납하고, 제천대성을 자처하도록 부추긴 인물이다. 자아를 가장 높고 유일한 존재로 집착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뿔(獨角)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독각귀왕을 따르는 72동의 妖王들은 하나에 호응하는 많음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 하나(一)와 많음(多)은 화엄적 一卽多, 多卽一과 다르다. 화엄적 一卽多는 본질과 현상의 불이성에 대한 규명으로서 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본질이라 할 하나와 현상이라 할 많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독각귀왕과 72동의 妖王들은 하나와 많음에 집착하고 있는 바, 그래서 귀신(鬼)이고 요괴(妖)이다. 그 부정적 의미는 숫자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一卽多에 비하자면 하나(獨)는 넘치고, 72는 부족하다. 독각귀왕은 절대적 하나를 고집하므로 넘친다. 72동은 妖王은 무한에서 한 차원 부족하다. 중국적 숫자 개념에 의하면 우주법계의 무한한 제반현상은 9×9=81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妖王들은 9×8=7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허공의 신들에게 잡혀가고 만다.

그러자 손오공은 하나의 털을 수천, 수백의 원숭이로 만들어 사대천왕 등을 물리친다. 하나의 털이 무수한 원숭이가 되고, 다시 그것이 하나의 털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一卽多의 원리에 충실하다. 하나의 원리를 내세워 자아를 압박하려는 사대천왕 등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손오공을 지탱하는 것은 여전히 자아의 실체성에 대해 집착이다. 하나의 털이나 그것이 변한 무수한 분신들이나 모두 원숭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독각귀왕과 72동 요왕들은 잡혀갔지만 자아왕국의 기둥이 되는 네 명의 장수는 살아남는다. 네 명의 장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나식과 함

24) 莫採他, 詩酒且圖今日樂, 功名休問幾時成. 『西遊記』(第5回), p.36.
25) 這潑毛神, 老大無禮. 本待不與他計較, 如何上門來欺我. 『西遊記』(第5回), p.36.
26) 손오공은 구요성관의 죄목나열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제로 있었다(實有)'는 말을 거듭한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는 말인 동시에 실체가 있음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 쌍관어로 이해될 수 있다. 這幾樁事, 實有, 實有. 但如今你怎麼. 『西遊記』(第5回), p.36.

께 하는 我癡, 我慢, 我愛, 我見이다. 그래서 손오공도 자기의 종족이 하나도 잡혀가지 않았다고 기뻐하는 것[27]이다. 이 싸움의 핵심은 천신들이 천라지망의 압박과 통제로 자아의 화신인 손오공을 잡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억압과 통제 앞에서 자아의 군대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심지어 힘을 기르기까지 한다.

> 우리는 또 빈틈없이 지키면서 한 바탕 배부르게 먹고, 마음 놓고 푹 자서 힘을 비축하도록 하자. 날이 밝으면 큰 신통을 부려 저 하늘의 장군들을 잡아들여 우리의 복수를 하도록 하겠다.[28]

이러한 자아왕국의 마왕을 상대하려면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옥황상제에게 관찰의 명수인 二郎真君을 추천하여 손오공을 상대하게 한다.

5. 二郎真君의 관찰과 집중

二郎真君은 옥황상제의 누이동생과 인간 사이의 소생으로 灌江口의 치수사업을 한 공로로 신으로 신봉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하늘의 장군들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에 관세음보살은 왜 이 중간계의 신을 추천한 것일까? 그리고 이랑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천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수행하여 손오공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우선 그가 灌江口의 수호신이라는 점에서 그는 자아를 집착하는 손오공을 상대할 자격을 갖고 있다. 관강구는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인데, 중국에 이랑신과 관련된 관강구가 여러 곳이 있다. 그 중 都江堰의 수리시설을 가진 사천성의 관강구가 유명하다. 사천성 成都는 큰 산을 기준으로 서쪽은 홍수가 심하고 동쪽의 평야는 물이 없어 가뭄이 심한 특징이 있다. 이에 秦나라의 李冰과 그 둘째 아들이 산에 물길을 내어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이 관강구 都江堰의 물길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인 둘째 아들은 민간에서 다양한 전설의 주인공이 된다. 물이 갈라지는 입구인 관강구에 이랑신의 사당이 세워진 것은 그 신성한 힘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江蘇省에 있는 관강구도 유명한데 『서유기』의 작가로 얘기되는 吳承恩이 직접 이곳에 가서 손오공과 이랑신의 싸움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여행기가 전한다.

『서유기』에서 이 관강구는 두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치수사업의 차원에서 그것은 손오공이 들고 있는 여의봉에서 일보 전진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의봉의 원래 주인으로 얘기되는 禹임금의 치수사업은 범람하는 홍수를 막는 대신 물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의 욕망을 무조건 억제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인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이에 비해 관강구는 물의 피해를 막는 소극적

---

27) 況捉了去的頭目乃是虎豹狼蟲, 獾獐狐狢之類, 我同類者未傷一個, 何須煩惱.『西遊記』(第5回), p.37.
28) 我等且緊緊防守, 飽食一頓, 安心睡覺, 養養精神. 天明看我使個大神通, 拿這些天將, 與眾報仇.『西遊記』(第5回), p.37.

기능은 물론 그것을 끌어들여 평야를 적시는 적극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탐진치의 근원인 마음을 전환하여 계정혜의 지혜로운 자리로 이끄는(轉識得智) 불교적 지향에 대한 효과적인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강구가 강의 근원이 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강이 하류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한다 해도 결국 그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손오공의 변신술이 무수히 형상을 바꾸는 강의 모습이라면 이랑신의 흔들리지 않는 추적은 강의 근원을 쥐고 하류의 변화에 대응하였던 그의 전설적 모습의 변용이다.

다음으로 이랑신이 둘째 아들이라는 점은 자아를 상대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중국의 신화에는 다양한 이랑신이 나타나지만 모두 둘째 아들의 신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싸움의 제2선에 있다. 나아가 그가 옥황상제의 외조카이면서도 그 명령을 직접 받지 않는 존재라는 점도 제2선의 의미가 있다.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인 그는 제2선에서 조망하고 관찰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랑신의 싸움은 비춰보는 일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봉황의 눈(鳳目)이라 불리는 제3의 눈이 세로로 나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눈은 외형적 변화에 속지 않고 실상을 바로 보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손오공이 무엇으로 변신하든 상관없이 알아채는 것이다.

특히 손오공과 이랑신의 변신술 시합은 자아를 관찰하는 눈에 대한 이야기이다. 궁지에 몰린 손오공이 참새가 되어 덤불에 숨자 이랑신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매가 되고, 가마우지가 되어 달아나자 창공을 높이 나는 바다 두루미가 되어 그것을 찾아낸다. 물고기가 되자 물수리가 되고, 물뱀으로 변하자 검은 목 두루미로 변해서 뒤쫓는다. 이랑신의 변신은 어느 경우나 높이 날며 시력이 좋은 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는 이 높이와 이 시력으로 개별적 대상을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관찰하여 그 정체를 파악한다. 물고기로 변한 손오공을 보면서 이랑신은 이렇게 말한다.

> 저 꽃무늬 물고기는 잉어 같지만 꼬리가 붉지 않구나. 쏘가리 같지만 꽃무늬 비늘이 보이지 않는구나. 가물치 같지만 머리에 별무늬가 없고, 방어 같지만 뺨에 침이 없구나. 그런데 어째서 나를 보자 달아나는 것일까? 틀림없이 그 원숭이가 변신한 것이로구나.[29]

그 관찰의 핵심은 이처럼 관계성의 파악과 '곧 아니다(卽非)'의 결론에 있다. 형상에 속지 않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랑신이 하늘의 여신과 지상 남자의 만남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유기』에서 천상은 정신, 관념, 원리를 대표하는 세계이다. 그것은 손오공을 항복시키지 못한다. 원리만 가지고는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상은 구체적 모양을 갖는 현상계를 대표하는 세계이다. 천상의 신과 지상의 인간이 만나 이랑신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원리와 현상이 통일되는 차원을 말하기 위한 장치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공묘유라 표현한다. 모든 것은 실체 없는 공이지만 그것은 눈

29) 打花的魚兒, 似鯉魚, 尾巴不紅. 似鱖魚, 花鱗不見. 似黑魚, 頭上無星. 似魴魚, 鰓上無針. 他怎麼見了我就回去了, 必然是那猴變的.『西遊記』(第6回), p.42.

앞의 현상들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랑신은 진공묘유적 중도의 눈[30]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한다.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집착(色)→空→공에 대한 집착→공에 대한 집착의 해소(空空) 내용으로 하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설법주인 관세음보살이 이랑신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랑신이 거느리는 군대 또한 마음에 대한 관찰의 비유이다. 이랑신은 외삼촌인 옥황상제의 지원요청을 받는 즉시 부하들을 거느리고 관강구를 떠나는데, 이 때 梅山의 여섯 형제들이 그의 명령을 받는다. 이 여섯 형제들은 누구인가? 이랑신의 원래 전설에 의하면 그는 매산에 사는 일곱 영웅과 의형제를 맺는다. 그래서 이랑신의 형상은 항상 매화산의 일곱 성인(梅山七聖)과 함께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서유기』는 여기에서 하나를 빼어 여섯 형제로 만든다. 그것은 여섯 가지 의식작용(六識)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眼·耳·鼻·舌·身·意의 감각기관을 통한 여섯 인식작용이 그것이다. 육식은 불교적 수행에서 극복의 대상인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것은 번뇌의 시작점이므로 극복의 대상이지만, 이 작용을 아는 일 자체가 수행이므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원래 여섯 가지 인식작용은 가치중립적이다. 여기에 자아의식이 개입하면 개념과 판단이 일어나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아의식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인식작용에 개입하여 온갖 번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아의식의 개입을 중단하면 보고 듣는 육식의 일이 다 진여의 작용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다섯 인식(前五識)의 차원에서 보고 듣는 모든 일이 이미 완전히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유식에서는 이것을 成所作智라 한다. 한편 알아차리고 구별하는 작용을 하는 제6식(意識)은 전체와 개별이 둘이 아님을 제대로 관찰한다. 妙觀察智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일이 여섯 형제에게 일어난 것이다. 원래 이 여섯 형제는 매산의 괴물이었는데 이랑신이 항복을 받아 그 부하로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번뇌를 불러들이는 매개자(梅山=媒山)인 육근과 육식을 항복시켜 지혜의 근원으로 바꾸는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는 괴물이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된다. 장애로서의 의식작용이 지혜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육식의 여섯 형제는 오묘한 관찰의 지혜로 이랑신을 돕는 것이다.

이랑신이 손오공을 잡는 싸움에 매와 사냥개를 데리고 나섰다는 사실 또한 주목을 요한다. 이 중 사냥개는 손오공이 쓰러지자 장딴지를 물고 늘어져 그를 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어떻게 사냥개가 하늘의 천신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하는가? 이 개는 매와 짝이 되어 움직이는데 전설에는 매가 보이지 않으므로 의도적 변형이 가해진 부분으로 이해된다. 전설 속의 이랑신이 개를 데리고 다닌 것은 사냥기술의 발전을 상징한 것인 듯하다. 산지가 많은 사천성에서 이랑신은 사냥의 신으로 숭배된 흔적이 있기까지 하다. 그의 일곱 의형제가 사냥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랑신의 원래 신화에는 사냥개만 나타나는데 『서유기』에는 매가 함께 묶여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어째서 전설에 없던 매를 추가하고 다시 이 둘을 함께 묶어두는 묘사를 하게 된 것일까? 원래 매는 시력에 뛰어나고, 사냥개 역시 후각 등에 있어서 특별한 감지력을 갖고 있다. 나아가 사냥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을

30) 그의 鳳目이라 불리는 제3의 눈이 두 눈의 중간이 되는 지점인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가 중도의 눈으로 자아와 대상세계를 관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갖고 있다. 이랑신은 이 사냥개와 매를 같이 묶어 관리한다. 매의 밝게 보는 눈과 사냥개의 물고 놓지 않는 이빨을 함께 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집중(止)과 관찰(觀)을 함께 닦는 불교적 수행을 상징하기 위한 조치이다. 집중은 사냥개의 이빨처럼 물고 놓지 않는데 있고, 관찰은 매의 눈처럼 밝게 보는데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랑신을 둘러싼 거의 모든 일이 관찰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무게감의 차이는 확연하다. 집중보다는 관찰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개의 '물고 늘어지기'가 없었다면 손오공을 잡기 어려웠다는 것도 분명하다. 원래 집중과 관찰(止觀), 혹은 선정과 지혜(定慧)는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둘로 나눌 수 없다. 진정한 집중은 관찰에서 오고, 진정한 관찰은 집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숙한 마음의 사냥꾼인 이랑신은 항상 사냥개와 매를 함께 묶어 두어, 집중과 관찰을 통일하고 있다.

6. 결 론

이랑신이 손오공을 잡았다 해서 그것이 자아의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이랑신은 그 관찰과 집중의 힘으로 자아를 파악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마음을 대상화하여 그것을 항복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신들과 마찬가지의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그 관찰과 집중에 있어서 대상과 주체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오공이 이랑신의 모습으로 변해 관강구의 이랑신전에 들어가자 그를 찾아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눈으로 자기의 눈을 보려는 일과 같은데, 이 불가능을 뛰어넘으려면 관찰하는 주체를 함께 비추는 보다 큰 비춤(常寂常照)의 차원에 들어가야 한다. 『서유기』에서는 托塔天王의 照妖鏡이 이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관찰하고 집중하는 주체인 이랑신을 함께 비추는 일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관찰의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보는 일만 남게 된다. 이것이 조요경의 비춤이 상징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대상화하고 주체적 노력에 의해 그것을 제압하려는 시행착오는 거듭된다. 천상의 신들은 이랑신에게 잡혀온 손오공을 창과 칼과 도끼로 자르려 하지만 어떤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러한 유위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태상노군의 팔괘로가 나타난다. 태상노군, 즉 노자의 팔괘로는 유위적 노력을 내려놓는 무위적 지향을 상징한다. 그러나 태상노군의 팔괘로 역시 손오공을 녹이지 못한다. 유위의 상대적 측면으로 제시된 무위는 자아를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지향을 갖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자아를 강화하는 길을 걷는 일이기도 하다. 이후 손오공은 수시로 팔괘로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일로 불괴의 몸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 괜찮아, 나를 녹일 수는 없어. 이 손 어르신이 500년 전 천궁을 발칵 뒤집어놓았을 때 태상노군의 팔괘로에 넣어져 49일간 단련된 적이 있었지. 그래서 심장과 간은 황금처럼, 폐부는 은과 같이, 이마는 구리처럼, 등은 강철처럼 단련되고, 불같은 눈에 황금 눈동자를 얻었단 말야.[31]

---

31) 沒事, 化不得我. 我老孫五百年前大鬧天宮, 被太上老君放在八卦爐中, 煉了四十九日, 煉成個金子心肝,

이에 비해 여래의 손바닥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제시한다. 여래는 '있는 이대로의 이와 같음에 맡겨두는(如來)' 차원에서 손을 보여준다. 손은 선가에서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데 유용하게 써온 상징이다. 그것은 펼치면 다섯 손가락이 되고, 합치면 하나의 주먹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손바닥은 다섯 손가락으로 퍼져 나가고, 다섯 손가락은 하나의 손바닥으로 돌아온다. 손바닥이 본질이라면 손가락은 현상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와 다섯은 둘 아닌 불이의 관계에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이 진정한 중도의 실천이 된다. 이것을 모르는 손오공은 자신이 여래의 손바닥을 벗어난 일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 당황한다. 이에 여래가 손을 오행산으로 만들어 손오공을 가두게 되는데, 손오공은 그 둘 아닌 불이의 세계를 체화할 숙제를 받게 된 것이다. 불교적으로 우주법계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것이 진여이고,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오되 사실은 가고 옴이 없는 것이 여래이다. 손오공이 체험한 여래의 손바닥에는 가고 옴을 나눌 기준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이 금목수화토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원래 손오공은 전투는 오행을 뛰어넘는 절대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행산에 갇힌 원숭이는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기를 멈출 수밖에 없다. 오는 것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심지어 배고픔과 목마름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초근목피가 와도 그대로 먹고, 산해진미가 와도 오로지 받는 것이다. 실제로 손오공은 배가 고프면 쇠구슬을 먹고, 목이 마시면 구리 녹인 물을 먹도록 조치된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형벌이지만『서유기』에서는 이것을 여래의 자비심으로 표현[32]한다. 이원분별로 인한 생사의 현장을 벗어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이 숙제를 500년 동안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아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의 현장을 살피는 忍辱의 기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吳承恩,『西遊記』, 上海古籍出版社, 2004.
吳承恩,『西遊記』, 長春出版社, 2005.
오승은, 서울대학교서유기번역연구회 옮김,『서유기』, 솔출판사, 2004.
강경구,「西遊記의 花果山에 대한 불교적 독해」,『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12.
강경구,「西遊記, 용의 출몰, 말나의 그림자」,『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12.
강경구,「西遊記 豬八戒 형상의 불교적 독해」,『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16.03.
林宪亮,「孙悟空官职－弼马温考 英文」,『中国典籍与文化』, 第72期, 2010.02.
劉 緋,「解讀『西遊記』禪宗的心性修煉」,『安徽文學』, 2009年 第5期.
寧榮生,「『西遊記: 精神分析之旅』,『江西社會科學』, 2004年 第07期.
孔刃非,「孫悟空—唐僧的心靈幻影」,『九江師專學報』, 2004年 第04期.

銀子肺腑, 銅頭鐵背, 火眼金睛.『西遊記』(第34回), p.257.

32) 如來即辭了玉帝眾神, 與二尊者出天門之外. 又發一個慈悲心, 念動真言咒語, 將五行山召一尊土地神祇, 會同五方揭諦, 居住此山監押. 但他饑時, 與他鐵丸子吃, 渴時, 與他溶化的銅汁飲. 待他災愆滿日, 自有人救他.『西遊記』(第7回), p.5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西游记, 戰鬪, 佛教的解釋, 孫悟空, 三法印
	영문	*Journey to the West*, battle with gods, Buddhistic interpretation, Sun Wukong, Three marks of existence

A Buddhistic interpretation of Sun Wukong's battle with gods

Kang, Kyong-Koo

Journey to the West is a novel that described a journey toward sublimation of mind, where distinct Buddhistic symbol and message are found. Journey to the West takes Master Monk Xuanzang's sermon journey as the motif of the novel creation. Due to this, it is understood that the story of each chapter and subject consciousness have a close affinity with Buddhistic practice of the site. Particularly, Dharmalaksana and Prajna belong to the consistent subject consciousness that leads the whole story of *Journey to the West*. Besides, practices of various Chinese Buddhism are taken as the content, accordingly, *Journey to the West* is necessary to melt various Buddhistic ideologies in literary figure and be understood as the united site. However, due to the excellent achievement of literary embodiment, Buddhistic subject consciousness seemed to be concealed. Study on Buddhistic subject consciousness on *Journey to the West* proceeded considering this point is not rare in domestic and overseas, and the researcher also proceeded consideration related to this.

Image of Sun Wukong also shows a consistent Buddhistic message in respect of the birth, Taoist art learning, battle with gods, and the role in *journey to the West*, etc. The overall journey from Demon to saints takes the route of Dharmalaksana's Turn to wisdom, adventure story of each chapter aim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realization of Emptiness. In this context, when considering the image and role of Sun Wukong, more abundant and consistent understanding to *Journey to the West* can be attained.

This research intended to view the battle between Sun Wukong and gods as the obsession of the self and the efforts for the settlement and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When surveying beforehand, battle between Sun Wukong and gods begins from the obsession of the self, reveals feebleness of the efforts to suppress and control it, then suggests the way of observation as the solution. That begins the denial of the essence of life, i.e. Impermanence · pain · anatman, defined as Three marks of existence of Buddhism, continues to the observation of that obsession, then concludes as the discovery of siege of the self. Above all, this research begins discussion by investigating the way the denial of current state of life appear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강경구 / 姜鯨求 / Kang, Kyong-Koo		
	소 속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Em@il	kkkang@de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8월 21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